



inside-out@yonsei.ac.kr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19대 총학생회



Sun 25

Mon 26

Tue 27

Wed 28

Thur 29

Fri 30

Sat 31

생리 결석계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인 생리 결석계 제도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2006년 19대 총학생회는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한걸음으로 월경 공강제를 추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현 학칙 상 결석 처리에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월경통에 의한 결석계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모든 문화 분위기가 현재의 가부장제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여성에게 가부장적 시선과 가부장적 제단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말하는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성이 월경을, 생리를 말한다 것은 '그 날'로 대표되었던 나의 경험을 말하고, '깨끗함'으로 숨겨야 했던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제도화를 앞두고 실시되는 생리결석계 시범 운영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이차, 차대 간호대의 경우에는 학부대학 소속일 때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호대는 1학년, 이차 차대는 2학년이후에, 치위생과 까지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9대 총학생회는 이차간 학생회와의 논의, 학교 측과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으로써 생리결석계의 정식 운영 및 제도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리결석계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 연세대학교 학사 포털 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에 로그인하세요
→ 학사포털/교과 수강 분야에서 → 생리결석계를 클릭하세요

* 생리결석계 신청 시 참고사항

1. 결석계 인정여부는 담당 교, 강사의 재량으로 실시
2. 한 학기에 최대 5일, 1회 2일까지 사용, 다음 사용은 3주(21일) 후부터
3. 결석계 제출은 결석일로부터 10일까지
4. 재물, 시험 및 각종 평가시 결석은 불인정



Sun 29

Mon 30

Memo

여성네트워크

대학에 입학한 후 생소하면서도 새로웠던 것은 여성주의 학교, 여학생 소모임, 여성주의 학회와 같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때를 돌아보거나 가깝게는 현재의 대학 생활을 살펴보면 여학생만의 공간, 여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학내의 공간과 문화는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의 활동을 만들고, 나 역시 그러한 여성이 되도록 압력적인 강요를 하고 있었다. 내가 '여성'으로서 그 틀에 맞지 않았을 때에는 '조심하지 않다, 애대생답지 않다'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고, 나는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하고 분노를 느끼는 날들의 연속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고민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즈음부터였다. 내가 생각했던 '세 수업시간에 관한 고민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억압에서 자유로운 대학생활과는 다르게, 실제로 학내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이전에는 문제로서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남성중심적인 분위기에라는 사실을 깨닫할 수 있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때서 오는 혼란 혹은 나의 예민함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학생회와 만나내 사이트를 알게 되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혼란스러운 혹은 불편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예민한 것도 아니었고,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기 때문인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과 이면하면 이야기를 하고 듣는 동안 깨달은 것은, 그저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여성네트워크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어떠한 제언이나 타자화된 사실 없이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공간과 고민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충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의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종속해야 하는 여성으로 규정됨을 경험하고 남성중심적인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내게 있어 여성네트워크는 이러한 고민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동료의 장이고 소통의 장이 되었다. 학내에 있는 많은 여학생 소모임이나 만나내 사이트와 같은 여성네트워크들은 '나와 나의 다름과 같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학내 문화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나의 의지와 실관함이 요구되었던 '남성이 아닌' 주변인으로써의 위치에서 벗어나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 연구원 <http://www.unninet.net/>는 2000년 웹진으로 시작하여 현재 대표적인 여성주의 모험로서 자리잡은 사이버 공간이다. 1500여개에 이르는 자기만의 방블로그, 4000여개에 가까운 동요회, 수다방, 토론방, 지식놀이터 등이 있으며 2008년 '자기만의 방'에 있는 게시판 글들을 모은 책 '만나내 방'을 출판하였다.



Sun 27

Mon 28

Tue 29

Wed 30

Thur 31

Memo

여학생 휴게실 이야기

여학생 휴게실은 얼마나 실험적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소통공간이 될 수도 있구요.

- 지하생활자의 수기 / 2004년 (여·휴·만·만) 자료집 중

(여·휴·만·만)은 2004년 혼여학생회의 일상정치과일상의 불면함을 여성 주체적으로 고쳐치기라는 일을 담담한 주축으로 결성되어 여·휴·만·만 개관을 하고 후에 요구채나감과 동시에 학생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해나간에도 지금처럼 여·휴·만·만 대한 사실, 복지, 소통, 동등의 고민은 역시 있었네요. 2004 여·휴·만·만 권리 장전을 보면서 그때의 고민을 실험 함께 해보고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으로써 여·휴·만·만 만들기 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보여주세요



■ 여·휴·만·만 권리 장전

1. 기존 학교의 공간 구성은 철저하게 남성중심학이었다.
2. 학교에 여성공간은 현재 여학생 휴게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여학생 휴게실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닌 여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4. 여학생 휴게실은 쉽게 주어진 공간이 아닌 여학생들이 힘들게 싸워 얻어낸 결과물이다.
5. 학교는 여학생 휴게실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6. 학생회기구들은 여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에 요구할 의무가 있다.
7. 여성주의 단체들은 여성 공간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여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권리와 함께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9. 여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알거름으로 삼아 더 넓은 여성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0. 여학생 휴게실 관련 작업에 있어서 중심은 그 공간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r 28

Fri 29

Sat 30

이한열 열사 영정 그림 복원 사업 모금

2007년 6월 9일은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 기념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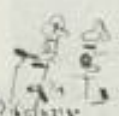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꿈꿔왔던 내무도 흔하여 그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흔한 말이 되어버린 자유와 민주에 대한 소중함을 공기와 같이 있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계층으로 삼고, 폭숨까지 끌어갈던 긴 시간을 통해 얻어낸 이 소중한 가치를 이제는 올바르게 지켜내는 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20년 전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칼날에 찢겨진 열사의 초상**은 이한열 열사, 6월 항쟁의 한 가운데 계셨던 이한열 열사가 세상을 떠나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상화가 바로 이문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펼쳐나갑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찢겨진 열사의 초상은 그토록 힘겹게 얻어낸 자유와 민주가 찢겨나간 것이고 모두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던 열사의 초상은 자유와 민주를 소중함을 잊은 우리 모두의 해안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의 시작, 잊었던 소중함 이제 6월 항쟁 20주기와 이한열 열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소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찢겨진 초상을 복원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로 잊었던 소중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4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한걸음에 영정그림 복원 기념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여, 모금사업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복원 기념 사업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문화재이자, 영장인, 한열 신배 초상화가 현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원 예정인 이한열 열사 영정그림) 

Sun 29

Mon 30

Tue 31

Memo

노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는 언제나 노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 어떨까요? 알고 계신가요?

엄마의 노동

엄마는 언제나 노동을 합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지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일들로 이 모든 노동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옷가지들을 챙깁니다. 가끔 독촉을 해서 받기도 하고, 뒤집어놓은 옷가지들을 제대로 펼쳐서 세탁기에 집어넣지요. 그 와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빨랫감 달라고 한다고, 혹은 입어야 되는 옷인데 엄마가 빨았다고, 혹은 빨지 않았다고 틀을대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들을 도약보다 달래 놓는 것도 '빨래'라는 노동 도중에 엄마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탁이 있어야 하고, 떨어지지 않게 마라미려 사놓는 것 역시 엄마의 일이지요. 그리고 세탁기가 끝날 때까지의 매대한 시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탁이 끝나야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빨래가 마르면 하나 하나 꺼서 가족들 방에 넣어줍니다.

이것이 엄마가 하는 노동 중 일부일 뿐 '빨래'라는 일의 과정입니다. 그렇해도 불구하고 엄마의 가사 노동은 언제나 가치 불허되며,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빨래'라는 가사 노동, 그리고 그 가사 노동 속에서 가족들의 투덜거림을 듣고 받아들이어야 하는 집안 노동은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들이 엄마에게 모두 전가된 것만으로도,



언니의 노동

취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용모단정'이라는 취업 조건을 용모가 어떤 식으로 단정했을 때, 좋은 취업의 문을 열거할 수 있을까 우선 그들은 비정규직 혹은 그나마 비정규직인 가장 흡사한 정예단정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키도 커야 합니다. 용모가 단정하려면 화장도 해야 한다는 군요. 그런데 내가 노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한 걸까요?

그 좋은 취업의 문 열고 들어가 용모 단정하게 앉아 있는 다른 언제나 듣는 한 마디들이 있습니다. '남자 친구 있어?' '이제 곧 결혼 해야지 소개팅 시켜줄까?'

나, 여기 일 하러 왔습니다. 용모 단정으로 당신들의 연애 대상이 되고자 온 것도 아니고, 여사 소개팅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정규직 이직에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허용된 노동은 언제나 가치 불허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내고, 술을 여성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와 언니들은 함께 분노하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 관련한 웹사이트

- 서울 여성 노동 조합(www.womencourt.or.kr)
- 여성 노동 가상 법정(www.womencourt.or.kr/womencourt)

Sun 26

Mon 27

Tue 28

Wed 29

Thu 30

Fri 31

Memo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가족이란 무엇이 떠오르세요? 단명한 '4명' 이 보이나요? 얼마 아
빠, 아들, 딸로 이루어진 하하호호 태어난 가족 주택이 보이시나
요?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179구는
원부모 가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 5가구 중 1가구는 싱글 가정이라고요. 하나 더 첨가하자면 2006
년도에는 5명의 결혼 커플 중 17명은 재혼 커플입니다. 우리는 참
정 다 다양한 가족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
리들의 가족에 대한 상상력은 3~40년 전과 동일합니다.



Illustrated by Kate Smith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부족한 상상력을 계속 해서 유지해나가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정형화된
'정상 가족' 틀을 행적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이런 '정상 가족' 속에서만
행복할까요? 아니 이런 '정상 가족' 속에서 진정 행복할까요? 모든 관계는 행복한 면도 있고지만, 불행
해 격대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 가족' 속에서 아버지에게는 기계 부양자, 어머니에게는 가사 노동자, 자식들에
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자식들은 성별에 따라서 여성에게는 엄마를 돕고 집안일을 하기를,
남성에게는 아버지 다음으로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자리하는 것을 요구받습니
다. 이렇게 요구받는 모습과 위치들에 따라서, '정상 가족'은 불평등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당연시하고, 구성
원들의 행동을 통제해나가고 합니다. 규정한 가족, 규정한 가족 속의 나의 위치, 나의 관계... 누구의 행
복을 위한 가족인걸까요?

그들의 행복을 위한 '정상 가족'을 탈피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우리는 꾸릴 수 있습
니다. 혈연관계도 결혼관계도 아닌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신비 관계를 바탕으로 가족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이상에 결혼 제도를 벗어난 비혼 커플, 혹은 비이성애자 커플도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과 독립된 삶
을 꾸린 중증 장애인도 있습니다.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재혼 가족, 독신 가족 등등등 하하하 나열하
면 끝임 없이 이어질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가족들은 우리 사회가 이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특징 -
동성애, 비혼, 재혼 등 그들의 결혼 제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
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나의 머릿속에 가족에 대한 상상력이 확실히 들어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가족
을 꾸리고 싶은가요?

Sun 28

Mon 29

Tue 30

Wed 31

Memo

여성문화 둘러보기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고픈 여성 문화, 영화 소개



8명의 여인들 Femmes / 8 Women, 2002

'여성아니까'라는 말로 모든 규정이 가능한 여성의 이런 역할, 이런 성격, 이런 못자림, 이런 행동들만을 이야기하는 문화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이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에도 만족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여성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주제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여성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가에 소개하는 여성 문화는 극히 일부, 그 중에서도 영화뿐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더 많은 여성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지요? 아, 너무 좋아 라고 느껴지는 여성 문화는 무엇 소문내요, 그리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큰 즐거움을 느껴 보면 어떨까요?

영화소개

- 나의 장밋빛 인생 (Ma Vie En Rose / My Life in Pink, 1997)
- 처음 만나는 자음 (Gai, Interrupted, 1999)
- 여고괴담2 - Memento Mori (1999)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2003)
- 고양이를 부탁해 (2001)
- 신공주 (2003)
- 테마와 루이즈 (Thema & Louise, 1991)
- 파니팅크 (Keiner Liebt Mich / Nobody Loves Me, 1994)
- 블란디트 (Blondie, 1997)
- 롤라 런 (Lola Rennt / Run Lola Run, 1998)
- 판타스틱 소녀 백서 (Ghost World, 2001)
- 8명의 여인들 8 Femmes / 8 Women, 2002
- 에린 브로코비치 (Erin Brockovich, 2000)

장편여성

- 거룩한 시스터즈 (2003)
-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 My Mother Likes Women, 2002)
-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 2001)
- 비포 선라이즈 & 비포 섀셋 (Before Sunrise, 1995 & Before Sunset, 2004)

전세계가 사랑해! 필독재팬 필만 명화!



판타스틱 소녀백서(Ghost World, 2001)

Sun 25

Mon 26

Tue 27

Wed 28

Thur 29

Fri 30

Memo

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여성'?

장애인이란 '말도 못하게'고, 여성이란 '말도 못하게'고. 그런데 장애 여성이고? 장애를 가진 여성을 말하는 건가? 그런데 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맞추어 놓은 '효율적' 노동을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종종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이라는 눈에 띄는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독립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스 미디어에서 비치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 비장애인의 삶과 가깝게 되거나, 입니까. 비장애인을 '정상'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무엇도 장애인의 주체성,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여학성회에서 장애를 이야기 하려는 이유입니다.

화장실의 1층 화장실은 3종류가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들끼리 나누어지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단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장애 운동이 일어나 무성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끄럽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무성적으로 진행되어온 장애 운동은 곧, 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애 여성은 이동을 도와 '준디는' 핑계로 '근근술'까지 가해지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은 자궁 제거 수술을 통해 미전에 임신 혹은 생리를 막음으로써, 그녀들의 모든 생수일리들을 무시한 채 무성적인 존재로 버려보려는 사회의 폭력적 시선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면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가시 노동 및 감성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남성 장애인 중심적인 장애인 운동 속에서 이러한 장애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여학성회에서 장애 여성을 이야기하고, 장애 여성 운동을 해나가려는 이유입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합니다. 장애 여성은 '장애' 여성도, 장애 '여성'도 아닙니다. 장애 +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장애 여성이 경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더 강화된 억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들을 폭로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참여학성회에서는 장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장애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애 여성 운동을 학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 여성 공감, 우리는 다양해지고 재밌어진다

장애 여성 공감은 다양한 장애 여성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거부당해 사회 속에서 묻혀있던 장애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욕망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독립을 꿈꾸기도 하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 속에서 장애 여성의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이들을 강제로 숨겨져 있던 거부당해 사회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져갈 것입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녀들의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푸-욱! (장애여성공감 www.wde.or.kr)



www.e-rang.or.kr

Sun 27

Mon 28

Tue 29

Wed 30

Thur 31

Memo

레즈비언 운동

'레즈비언'은 이제 낯선 단어는 아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존재 자체에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성애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지금의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애중심주의와 결합한 가부장적 사회는 처음부터 비이성애 존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호모포비아적인 언행과 같은 폭력을 용인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고민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성애자라는 다르게 레즈비언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스러움을 동반한다. 비이성애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나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한다면, 호모포비아적인 폭력 및 아웃팅의 위험과 떨어지기 어려운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일상과 맞닿아 있다.

가부장제는 그동안의 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름과 비정상'을 설정하고 억압해 왔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그 존재가 드러나는 당연한 일상을 위해서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경계 위에 선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경계를 해체하려고 한다.

종여학성회는 레즈비언 운동을 통하여 일상이 되어버린 차별을 분노할 수 있는 차별로서 바라보게 하고, 그동안 가부장제가 유지하며 노력해 온 정상성 속 해 이성애가 정상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한다. 또한 학회에 자의 집이 온 이성애 중심적인 분위기를 바꾸어나가는 데 노력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지만, 존재하고 있는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종여학성회는 이들이 숨겨고 있는 경계를 풀어내고자 한다.



illustrated by 우영다 후무코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 28

Fri 29

Memo

성매매 방지법 제정 후 2년

- 반성매매 운동의 한 페이지, 그리고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 방지법은 도덕적으로 타당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성매매의 구매자와 알선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에 '성매매'와 관련한 담론들이 '논식'에 타자 나오도록 했다.

성매매 방지법은 지난 2년 동안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다루면서 반성매매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개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최소한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자체를 두고 아직까지도 찬반을 나누는 등 한국 사회의 반성매매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고 보여 진다.

성매매는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이 몸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 경제적 문제이다. 또한 이는 동시에 문화와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매매를 줄이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문화와 의식의 변화 없이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남성을 성적 주체로 상징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 성폭력과性是 구분되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성폭력 범죄행위를 정당화한다. 때문에 성을 팔지 않을 권리와 성을 사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 맞지 않을 권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참지 않아도 되는 권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성매매, 성폭력과 같이 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범죄행위들은 비가시화 되어온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지원시스템을 더욱 구축시켜나가기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성매매는 분명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착각하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적으로, 피해자의 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매매 방지를 위해 더욱더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반성매매 운동이 이제 2년을 맞이한다. 인류의 각 역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 성매매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대응을 권리의 수준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보기 시작한 이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아직은 성매매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상이한 전망과 대응이 나오고 있으나, 이제 시작된 반성매매 운동은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개척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http://www.e-loom.org/>

성매매의 청사진/서울대 여성연구소 기획·이재민 역음/한울아카데미/2006





Illustrated by Yoko Kono

Inside OUT

이야기 공간

글순서

- 1 총여학생회 그리고 여성주의
- 2 **Inside OUT**의 2007년 계획
- 3 총여학생회와 친해지기
- 4 페미니티 소개
- 5 성폭력이란
성폭력 특별한 일아 아니다
- 7 내가 성폭력의 경험을 겪었다면
- 10 내 몸의 주인은 나 - 성자서 읽어보기
- 14 여자만의 방 소개
- 15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물건 이야기 / 생리대 이야기 / 속옷 이야기
- 17 월경야 월경야 뭐야-42 - 생리주기 달력
- 19 학내 여성지도 - 여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 21 함께 만들어가요! 색다른 여흥 - **Inside OUT** 여학생 휴게실 개선 운동
- 22 살롱하면서 폭로하고픈 학내 건물 별 장애 시설
- 25 여성학 추천도서
- 28 여성관련 줄/개/책/기
- 29 **Inside OUT**의 색다른 가능성 - 여성주의 운동 team 모집 공고
- 30 학내 전화번호

여성주의 참여학생회

많은 사람들은 여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참여학생회가 여·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학회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모두 여성주의라고 할지는 모르는데, '대표'로서의 참여학생회가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여성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Illustrated by 권민

흔히 쓰여지는 '가부장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위치를 위해 권력을 갖는 체도를 말한다. 가부장제는 가정의 위치를 위해서 기능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기제로서의 가부장제는 그저 남성이 권력을 갖는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로써 재확인되고 영향을 받는 여성의 억압상태가 있고, 자유로운 나의 정체성 이전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이 되기를 강요하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여성은 억압하는 것이 가부장제인 것이다. 이는 과거의 특정한 사회나 배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지체와 얽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다. 대학에서도 학내의 다양한 공간과 문화 및 수업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불편함은 더욱 배제되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과학 문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스스로를 지책하는 상황. 강의실에서 반반하게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교수와 성폭력적인 발언에 분노를 느끼지만 침묵하는 상황. 한 번도 꽤 본 적이 없는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는 FLM을 맞닥뜨렸을 때의 당혹감. 이성애중심적인 커리큘럼에 상황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 이와 같은 경우들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누군가는 '난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불편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불편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나는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 잘 모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여성주의는 어느 것에도 판단할 수 없는 개개인의 감수성을 그대로 바라보고 '여성'으로서 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가부장제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여성'으로서 살아온 경험은 비슷하지만 모두 같지 않은 여학생들의 모여진 목소리를 드러내고 일상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학내 분위기에 대한 성찰과 여성주의의 재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학생회는 모두의 이름을 어느 틀 속에 가두지 않은 채 나의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서 여성주의를 지향한다.

Inside OUT!

2007년 한해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갔고자 합니다



Illustrated by gnom0808

주목적인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레즈비언 운동

- 이성애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레즈비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적 틀을 열었습니다.
- 학내의 성소수자 단체를 지원하고, 외부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장미 여성 운동

- 학내외의 장미 여성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축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여성운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장미 여성회 교육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작으로 학내 장미연의 시위를 실시하겠습니다.
- 함께 고민하기 위한 세무나 다류센터의 성명제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요! 색다른 여류

- 여학생 휴게실의 시설 확충 및 개선과 함께 여학생 휴게실을 여성주의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키우는 반성문화 운동

- 여성 스스로의 힘을 긍정하고 펼쳐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반성문화 운동으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 투쟁

- 07년도 1학기에도 진행되는 학교 측의 성과 결핵제 시행 운영 이후, 성과 결핵제가 성적 운동 및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에서 쉽게 여성학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여성학 수업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 여학생 전공 채우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여학생 전공 채우 수업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채우 활동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여학생 사생활 학습 역시 요구하겠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해서도 꾸준한 이어가며, 부당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축제로 만나는 여성주의

- 여성주의를 통한 고민과 언어로 함께하는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함께 하였습니다.
- 여성주의를 통해 마음속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성제>를 열었습니다.

여성주의 나눔과 소통의 장

- 학생회관 3층 참여학생회실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주의 지지 도서관인 페미니티를 활성화하고, 페미니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 여성주의 학과외 강연을 통해, 들리지 않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내 여성주의 모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매체 발행으로 일상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관행에 문제제기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성주의 매체를 발간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와 친해지기



늘 수업 혹은 매체로 글 속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총여학생회가 하는 행사에 얼굴 해볼까
내놓아보셨다구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만나보고 싶단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친해
지고 싶으시다면요?

신경로 총여학생회 대표가 된 사람, 총여학생회 집행부로 함께 일하는 사람, 총여학생회
행사에 기획단으로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총여학생회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즐겁
게 공동체를 꾸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여성주의적 이야기와 활동들을 통해서 여성주의적으
로 행해진 오모임을 내놓고 있는 총여학생회와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물론, 저희가 소개하는 방법
 말고도 무궁무진한 새로운 방법들이 있겠죠 새로운 방법들로도 저희와 친해주시세요! >_<

1. 친해지는데 뭐 있어요? ~저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외치기

특히,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고 안개도지, 많은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이 무궁무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
무에게나 이야기해보세요. "저, 총여학생회와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다들 한 달 동안 총여학생회는 총여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어놓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반겨주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줄 거예요.

2. 하지만, 저는 좀 소심해서요.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는데요.'

뭔가 덜컥 외치기에는 조금 소심하시다고요? 그러면 페미니리를 이용해보세요. 총여학생회와 친해지기
위한 환경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가져가면 여성적 도서에 물론 더 사랑에 빠지실지도 모를
니더! 페미니리를 이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총여학생회 집행부나 페미니리 담당자가 친절한 이용 방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리에서는 오프라인 모임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곳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3. 두 방법 모두 성실할 것 같아요. 행사 참여 하기

총여학생회가 준비하는 행사에서는 자주 참가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됩니다. 그곳에 신청해보세
요. 언제나 다채롭고 다양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총여학생회 참가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들도 이런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Quality도 보정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4. 저 시간 많아요~ 행사 참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물론 물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총여학생회가 뒤집어지게 한호성을 치고 환영할거
예요. 총여학생회에서는 행사별로는 여성주의 세팅기 OT, 레저버전 문화제, 여성주의 기획단을 모집할 예정
입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싸이월드 여자의 방 플럼 각 게시판 홈페이지에도 언제나 기획단 모집 행자로
를 올려드리고요. 꼭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총여학생회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장래
여성 운동, 레저버전 운동, 학생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은 1년 내로 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참
하실 때 참여하는 주제를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2123-3645, inside-out@yonsei.ac.kr로 연락주세요. ^^

페미니리 소개

feminary 여성주의 자치도서관



여성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는데, 책도 읽고 싶는데, 어디로
가실지 모르시겠단가요?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안에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고 나서 "페미니리 이용하
려고 왔어요~"라고 이야기하시고, 총여학생회실 내에 두 번
째 문인 초록색 페미니리 문을 여시면 다양한 도서들을 만
나실 수 있습니다. 대여는 페미니리 방에 써치있는 "페미니
리 이용 수칙"을 살짝 봐주시면 되구요. 이름, 연락처를 적으
시고 2주 안에만 돌려주시면 되요!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는 단순히 책이 있는 공간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성주의에 대해서 공부하
고, 같이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공간으로 발돋움하러
고 합니다.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는 안락한 공간. 페미
너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적 자율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공간이나 심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 성적 인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단순한 Yes/No 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성별관계 관제 안에서 성폭력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역시 불평등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인 Yes와 No의 따사를 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성폭력! 특별한 일이 아니다

● "합성"에 스며있는 성별관계관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이런 행위는 어깨동무를 당하는 여성에게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부터 언어성폭력까지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여성의성에 대한 억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억압의 내재화는 우리의 일상과 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나의 일상과 몸에 대한 세심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 공간만이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의 개념 안에는 흔히 떠올리게 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농담, 성가 노출, 음란 전화, 아래 구덩,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등 상대방에게 공로나 불만을 주는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간의 경과와 심각도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의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의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경향과 노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불쾌감과 상처를 감안 정도의 것이나 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배움의 장, 학문의 성지인 대학이라고 해서 성폭력 지대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학문화 역시 남성중심적인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와 경험이 드러나지는 쉽지 않습니다.

과, 반, 동아리에서 고학번 여자선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어학성이 가질 수 있는 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중심적인 사안에 의해 어학생들의 위자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그녀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소외감과 불만입니다. 언어의 대상 혹은 여자 같지 않은 여자라는 위치를 덜지 않고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술자리 문화는 대학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자리의 문화 역시 대부분 남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남성애에 의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이 '분위기'라는 명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대상화됩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술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로 인해 집단 구성원 중 누군가가 성희 불쾌감을 느끼고 배제된다면 과연 그것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역시 성폭력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학생들, 혹은 수업에 있어서 가히 절대적이고 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수업 중 불쾌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의 권위라는 이름 뒤에서 혹은 분위기나 재미를 위한 것이라는 말 뒤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 발언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보통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제기하고 학내에서 성폭력 관련을 형성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피해의 생존지 자신입니다.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경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폭력 상담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참여학생회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inside-out@yoonack.kr)



Illustrated by 김민지 후쿠오카

내가 성폭력의 경험을 겪었다면

●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성적 주제

성폭력의 경험은 너무나 힘들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심적 고통 속에서 내 몸
에 직접 각인된 상처를 어떻게 말로 풀어내고 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해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인 동시에 성적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얻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성(Sexuality)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만큼 성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입니
다. 결코 여성이 성(Sexuality)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폭력을 말
함에 있어서도 인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새터 혹은 과, 반, 동아리 등 대학 생활에서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2차가해의 심각성

'사람들 많으니 내가 참아',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래?', '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반응하면 나만
손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하는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은 많지 않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
로 재현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
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아무 생각없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나 존중하게 생각해야 할지.

●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2차가해의 심각성

'사람들 많으니 내가 참아',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래?', '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반응하면 나만
손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하는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은 많지 않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
로 재현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
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아무 생각없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나 존중하게 생각해야 할지.

●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게시판 시물이나 채팅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인 '사이버 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쓰는
행위,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

명성'을 빌미로 하여 사이버 성폭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당하였
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버 성폭력 상담전화: www.cyberhumanrights.or.kr) 로 가셔서 신
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내역 및 가해자 ID, ID와 확인이나 잘못된 것의 내용(채팅) 중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등을 신고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기하시어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 [신고] → [신고 안내]에 나옵니다.

●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함임과 불쾌함을 사익을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다보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함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를 보존합니다.

- 사건 후에 벗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
대로 곧바로 신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가는 게 좋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증거물(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 사용했던 종이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2. 신부인과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여부 및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 이 때 발견되는 파니 정맥은 법의학 및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끊어두세요.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소상에 연락하세요.
 - 학생회관 2층 여학생처 내 성폭력상담실 : 223-2788 help@pyon.ac.kr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형 상담소 : 02-739-1366~7 tc@womenink.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6-5801~2 kswc@bidders.or.kr

4. 신고는 하루수룩 좋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서울 지방 경찰청 여성서 기동대 : 778-8080)

· 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세대학교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성평등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반성폭력 학칙은 입학 글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한번이 일어나는 학교의 성폭력을 예방 하여 여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다년간의 개정문들을 거쳐 2004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관한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자치규약> 이하 자치규약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오리엔테이션과 사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9월 3차 개정되었습니다. 자치규약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속에서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정한 '자치 규약'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규약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llustrated by Kondon Aho

내 몸의 주인은 나!
- 성지식 알아보기 -

Talk about my sexuality

가끔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혹은 불쾌하다? 왜?

여성으로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 주체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먼저 부끄러운 하기 때문이다. "성적 주제, 남성이 요구하면, 성적 대상, 여성은 받아들인다."라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딪힘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부딪힘 없이는? 원치 않는 임신, 낙태, 성폭력 등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력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찾아내려지도 모른다.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해보자.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자기 성적 결정권 속에서 나를 사랑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몸의 이름을 알리기

성적인 주체로서 나를 아는 첫 번째는 내 성기의 명칭과 구조를 아는 것이다. 몸속에 있는 허파, 위, 심장 위치는 알면서 왜 성기의 구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대음순, 소음순, 음핵, 질입구 등 성기 구조의 명칭을 이전 '그가 있었어'라고 알려주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보자.

자위행위

남자는 95%, 여성의 80% 이상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별로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다.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오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묵 숨겨져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위를 통하여 여성으로서 독립성과 자기 의존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적인 욕망의 충족 자체를 중요한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성적욕구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다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욕구'라는 것이 사회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옹호되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성욕은 그와 반대로 사회화 과정에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쉽게 용인 받는다. 따라서 남성의 성욕은 본래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적욕구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절주름

채터락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채터락'이란 '락'이 아니라 몸속으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 입구를 보호해 주는 근육조직이며, 산육성이 있는 주름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주름'이라고 부른다. 채터락은 순결 아테올로기가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으며, 첫 성교시 채터락이 파열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다. 절주름 파열시 피가 나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0% 정도이며, 절주름은 심한 운동이나 외부 충격을 통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

피임 방법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사이라면, 성관계 후 여성이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의 건강상태와 느낌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피임은 성관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콘돔

남성의 성기에 고무막을 씌워서 정액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간단하면서도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고,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약국이나 편의점,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00~6000원 정도에 10개들이 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피임약

- 먹는 피임약 : 여성호르몬으로 만든 약으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거나 자궁 경역을 흔하게 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임신을 막는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매일 먹어야 하고 두통, 구토감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사용방법은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생리 첫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21일을 먹고 7일을 쉬는다.
- 붙이는 피임약 : 몸에 붙이는 호르몬 복합제로, 1주일에 한 장씩 3주 동안 붙인 뒤 1주를 쉬고 먹는 피임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적지만 한 달분이 3만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2004년 말부터 국내에 시판되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시루피임약 :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사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과도 100% 보장되지 않고 호르몬 피임약을 한 번에 몇 십 알씩 먹는 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야 한다. 호르몬을 과다 투여하는 것으로 몸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성욕에 피해를 입거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질 살정제

성관계 전 질 속에 넣어놓아서 질 속에 들어온 정자를 죽이는 방법. 겉과 내가 간단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관계 10~15분 전 질 속에 넣은 뒤 흘러내리지 않도록 누워서 성관계를 해야 하며, 성교 후 6시간 동안은 질을 씻지 않아야 한다.

페미돔

여성들이 질 속에 넣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액이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콘돔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지만 낯은 방법도 힘들고 하루에 2000원 정도로 콘돔에 비해 무척 비싸다.

자궁 내 장치

전로 병동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하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기타 피임 상식들

- 한 가지 피임법만으로는 100% 임신 예방을 할 수 없다.

어떤 피임법도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란일을 정확히 알고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배란일을 계산하면 피임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 기초 체온법(배란일의 체온이 좀 더 높은 것을 이용한 피임 방법)
- 월경 주기법(배란일을 계산하는 방법)
- 장에 관찰창(배란일에 나오는 혈액으로 배란일을 아는 방법)

- 피임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는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임도 함께 책임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성욕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이해와 성관계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월경기간 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주기는 짧거나 요로문에 이상이 생긴 경우, 생리 중에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 출혈을 생리라고 오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자는 몸속에서 5일 가량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리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생리 중 성관계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한 날이 배란일이거나 배란일까지 정자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임신이 된다.

-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정자는 사정할 때 한 아나과 성관계 중 조금씩 나오는 분비물만 무책임하게도 모함되어 있다. 질외사정은 남성들의 조루 원인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위해서도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 성관계 후 곧바로 씻는다고 해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의 빨리 씻어도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빠를 수 없는데다, 질 속 깊이 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복용 중단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하다.

여자만의 방 소개

<http://femispace.cyworld.com>



여자만의 방은 2003년에 처음 생긴 연세대학교 여학생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싸이월드에도 자리하고 있고요, 주소는 femispace.cyworld.com 입니다.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몇 군데 가장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여학생회에서 굳이 여자만의 방을 연 이유는,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마초들의 독단과 가부장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의 모든 게시판이 익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자만의 방에서는 친구들에게도 잘 꺼내기 어려웠던 월경이나 섹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만난 성추행범 이야기, 나를 작중나게 했던 성폭력 가해 교수 이야기와 같은 일상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여성 관련 이슈들이나, 여성주의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월경아기

여성의 자궁은 몸의 변혁 월경은 '그날'로 속삭여지거나 혹은 '깨끗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스컴에서는 세련된 생리대를 광고하며, '깨끗함이 달라요' 라는 말을 해오고, 그 때마다 생리를 하는 여성은 하얀 옷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으로 한정되어 표현된다.

월경은 여성의 생의 주기에 따라나는 자연스런 몸의 변화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관점 월경은 '이제 양배가 될 수 있는 신호'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거나 '배경이 오면 여성은 성적 욕망이 줄어든다' 라는 등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이해가됨에 의해 그 경향이 재단되고 있다.

여성이 자궁이 있기 때문에 모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면, 생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후에 가서야 하지 않았는가. (클로리나 스토리닝)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성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또 하나의 강제일 뿐이다.

또한 여성이 생리 주기에 따라, 자신의 몸이 따라 월경을 완성한 경험을 '배경'이라 하여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패권을 경험한 여성들을 성적욕망이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중년 여성들의 색욕유대를 무시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경험으로 월경을 말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제 여성을 어머니와 자자로 강제하는 말들에 고개라도 끄덕여지지 말자. 또한 생의 주기에 따라 자신의 몸이 따라 월경을 완성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배경을 환경으로 바꾸어 말하자.**

생리대 이야기

어떻게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일회용 생리대와 월분이 흘러나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생리대의 주재료인 필요를 얻기 위한 대대적인 발육이 세계 곳곳 - 특히 개발도상국 -에서 이루어지고, 화학물질이 포함된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환경 공해를 일으킨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에 첨가된 환경호르몬과 다 이옥신 등의 화학물질로 인하여 생리 부분의 고질적인 염색, 가려움, 찢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월분의 경우 흡수력 높은 합성섬유가 독성소금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하기만 하다.

▶생리대 이야기 - 나의 월경은 내가 관리한다 (피치앤앤드 www.bloodsisters.or.kr에서 발행)

▶만생리대 Rad Pads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생리대와는 달리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 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이다. 보통 부드러운 울렌생 천과 대리 천수건에 쓰는 천으로 만든다. 길 커



바와 속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팬티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날개와 폭박 단추가 달려있다. 물론 일회용만큼 편리가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리 번거롭지 않다. 쓰고 난 생리대는 카바의 속건에 분리해서 한 묶음에 담가두었다가 다른 팬티들과 세탁기에 함께 빨면 된다.

● 키피 Keeper

키피는 보습보통한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작은 깔개/쿠, 잘 얹은 뒤 질에 삽입해서 월경혈을 받아낸다. 키피는 12시간 정도 착용이 가능하며, 월경혈이 키피에 가득 차면 그냥 따라내리고 나서 살짝 물로 헹구 다음 다시 착용하면 된다. 한 번 구입하면 10년은 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해면 Sea Sponges

해면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해변에 치질을 붙여서 쓰는데, 힘에 달린 실처럼 앞에서 쉽게 해면을 꺼내기 위한 것이다. 해변을 붙여 놓고 흡액 작산 다음 물기를 꼬옥 짜내고 잘 내추에 삽입한다. 사용 후 해면을 캐러 물로 씻는다.



속옷 이야기 - 나의 몸을 조이는 이유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춘기,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슴이 자라는 것은 눈에 띄는 2차 성징 중 하나이며, 어떤 여성들은 신기함으로, 어떤 여성들은 불만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가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미처 생각할 사이도 없이, 자신에게 맞는 브라지어를 구입하여 착용할 것을 강요당한다. 브라지어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에게는 사람들의 낯설고도 놀라워하는 시선이 폭격하리만큼 붙어간다. 그래서 철사의 잔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답답한 속옷이 그렇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똥옷'을 입지 않을 평등clothes equals/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차극의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 신체와 입착할 뿐인 가슴이 덮이고 감추아야하는 부분, 심지어 신체에 무리를 주는 속옷을 착용해서라도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브라지어를 장기간 착용함에 따라 여성의 몸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브라지어는 갈비뼈와 흉곽위를 조임으로써 팔방의 호흡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이나 식도가 역하는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두 중간의 성장혈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유방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브라지어가 가슴의 모양을 고정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신체의 모양은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한다. 실제로 남성들이 상체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몸을 조이는 옷을 입는 일은 거의 없다. 몸을 조이는 여성의 속옷들이 당장 옷감시를 조금 낫게 보아주게 할지는 몰라도, 여성의 몸에는 시간이 갈수록 나쁜 영향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간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브라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건드려야 한다면, 똥옷을 벗고 다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길고된 속옷입기가 여성에 대한 어떤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을 잘 해야하리도 몸을 조이는 속옷들을 벗어내리지, 내 몸에 대한 시선에 달음질하느라 나의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월경아, 월경아, 뭐하니?

생리,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적으로 배란일은 다음 예정 생리일로부터 14±2일 전입니다. 따라서 생리주기가 30일인 경우 배란일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17일째가 되겠지요. 가임기간은 이러한 배란일과 더불어 정자의 생존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장 짧은 생리주기에서 10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첫날, 가장 긴 생리주기로부터 17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생리주기가 26일이고, 가장 긴 생리주기가 32일인 여성이 경우 생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8일째(26-18)~21일째(32-11)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생리주기는 개인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환경과 기분에 따라 차이가 크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은 정말 "평균적"일 뿐이지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생리주기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달 언제 생리는 시작했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6~8개월 정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Illustrated by
김민정 "달과 소녀"

예 생리기간이 7일이고, 가장 짧은 생리주기가 26일, 가장 긴 생리주기가 30일인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기록		생리주기 달력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리기간	☆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가임기간	▽ 8	8											
	▽ 9	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예상 배란일	▽ 15	15											
	▽ 16	16											
	♥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학내여성지도

여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 참여학생회실

- 경제에서 숨쉬는 새로운 가능성 Inside OUT 19대 참여학생회

앞에서 지파 19대 참여학생회 Inside OUT의 소개 및 지파와 친하게 지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 제든지 마음 편히 놀러오세요! 여학생 도서들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 페미니티도 있고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했던 이야기들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오셔서 친하고 재미있는 활동들도 함께해요! 참여학생회실은 학생회관 3층 왼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02-223-3645, e-mail: inside-out@yonsei.ac.kr

●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이용에게 열려있는 공간. 상담실은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02-223-2278, e-mail: helper@yonsei.ac.kr, 홈페이지: http://www3.yonsei.ac.kr/3888/women/

● 여학생지

여학생지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강연을 주최하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합 니다. 여학생 휴게실 등의 시설 문에도 할 수 있고, 여러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여학생지는 학생회관 2 층 성폭력 상담실 바로 옆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02-223-2235, e-mail: women@yonsei.ac.kr

● 논지방

논지방은 본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5층짜리 아담한 여학생 전용 공간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쁜 공간입니다.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고, 친구들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논지방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다만 개장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밖에 안 되어서 안타깝네요.

● 여학생휴게실

- 상대: 지하 학생 자치실 맞은편에 있어요. 좀 찾기 힘들답니다.
- 사회대: 연희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 오른쪽에 있습니다.
- 문대: 외승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 지과대: 지과대학 건물 2층에 있습니다.
- 법대: 공법관 지하 1층 복사실이 있는 복도로 가다보면 대형강의실 옆에 있습니다.
- 중대: 6층 자판기 옆에 있어요.

- 학관: 3층으로 올라가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참여학생회 바로 옆입니다.
- 이과대: 과학관 1층 왼쪽에 있는 미술실 맞은편에 있어요.
- 생대: 의과대학 건물 1층에 있어요.
- 공대: 제공학관 3층과 제공학관 지하 1층 복사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유가 어딴지?



- 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나 휴지처리하는 건 꼭 치우고 가주세요.
-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도 짜는 것이 좋겠어요.
- 우리들의 여유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건 생각을 보는 건 어떨까요? ^^

함께 만들어가요♡색다른 여류

(Inside OUT) 여학생 휴게실 개선 운동

여학생이라는 말에는 곧잘 행동과 재량이 따라붙습니다. 또한 학생이 아닌 여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는 것도 주장해야 할 일이 되곤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이기 때문에 치마 교복을 입고 뛰다니면 안됐고, 여학생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서도 안됐던 경험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대학은 열려 있는 캠퍼스, 자유로운 사고들이 있기에 이러한 여성상의 강요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일종의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전담실에서 편히 앉아 복 보고 자정면 먹는 건 여학생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들 합니다. 농구하고 축구하면서 땅 뜰라는 건 남학생들이나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내 분위기 속에서 학생의 일상, 학생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 학생은 비정규직/비정규직/남학생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모든 학생이라는 말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학생, 장애인, 동성애자는 너무나 당연히 배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Illustrated by 권미

여학생 휴게실이라 하면은 학내에서 누구의 재량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학생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내 여학생 휴게실은 학내 운동, 농구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단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 여학생은 곳곳마다 공간 활용, 갖춰진 시설물에서 모두 차이가 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통풍, 난방, 냉방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어둡고 침침한 공간 또한 많고, 미처할 각 단대 사무실과 여학생회가 관리하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은 휴게실 자체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학생 단체, 여학생 누구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간만 있고 '너희가 알아서 사용하라' 식의 학교 측의 태도로는, 방치된 공간으로는 여학생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일 듯.

이제 Inside OUT은 여류 환경 개선운동을 통해 학교의 당연한 의무인 여류의 사생활 확보·개선을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류가 주안인 여학생 여러분의 일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류 환경 개선이 불고 불고 하고 있습니다. 여류 날마다, 각 단대별 여성주의 소모임과의 만남, 여성 NEWS 등 여류들 문학공간으로 다시 보는 것 외에도, 상상하고 건조화(가만) 했던, 그저 내로남 말(가만) 했던 여학생 휴게실을 '색다르게 꾸며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조금은 따뜻하게, 여류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2007년, 여류 환경 개선 운동 team과 여류에서 일어나는 지극히한 변화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행의 따위를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

설명하면서, 폭로하고픈 학내 건물 별 장애 시설!



학교의 각 건물들은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성 화장실에만 위치해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낮은 계단으로 인해

여기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회관에 비해 자라는 날씨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2. 제1공학관(공대1리)

건물 정문에 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있으며 여기서 모든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는 강의실과 공대도서관은 정문에서 들어갈 경우와는 낮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좌측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제2공학관(공대2리)

건물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지하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곳을 제2공학관의 지하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층 강의실은 제2공학관 건물 뒤편에 있는 입구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는 장애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4. 과학관(과대대학)

건물 오른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 입구가 있습니다. 단, 이 문은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합니다. (당여 학우는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과학관과 인접한 층에 있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운행 CD가 없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장애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5. 중앙도서관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단, 경사로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면서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장애인구 전용 주차공간이 있을

여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시각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 안내판, 점자 블록이 있는 건물은 없는 것이 대. 빠른 경우들이 남겨지는 이 학교에서 과연 장애 학우들의 교육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게다가 중앙도서관, 백양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의 정문이 어둡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중여학생회에서는 이런 학내의 앞도 안 되는 공간들에 대해 폭로하고, 장애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 공학관(과대) 연구 센터

건물 앞 오른쪽으로 경사 진입로가 있으며 그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실제 입구가 좁아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사용이 불편합니다. 지하 1층 식당은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낮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접근이 힘들며, 음식을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

1143호 중학생의 학생 수첩 속 (장애 학우 대학 생활 만화) 참조

나다. 1층에는 장애학우 전용 자동문이 있어 도서관 내부에는 손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평상시 1층과 6층만 운행하며,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할 때에는, 1층 컴퓨터실로 들어가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불편해도, 장애인 화장실은 3층에만 있습니다.

6. 삼성생명과학대학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하며, 장애학우 화장실은 지하와 1층에만 있습니다. 매끈한 대리의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에는 다니기 위험한 공간입니다.

7. 백암관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으며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으므로 1층, 지하층, 3층, 5층 3곳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1층 출입구(강원, 후문), 지하 1층 출입구, 건물 뒤편에 있는 3층 출입구, 5층 출입구를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백암관 1층에는 새문내정에 학우휴게실과 아톰터치 장애인화우를 위한 장애인화우가 있으며, 청자 불꽃이 청문과 1층 내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우 화장실이 여남 구분되어 학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노트북 대여하는 곳), 컴퓨터실이 있으며, 3층에는 학사지도교수님들의 방이 있으며, 5층에는 대학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8. 백주년 기념관

건물 왼쪽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주년 기념관 중 박물관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강당은 계단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9. 학생회관

건물 뒤쪽으로 가면 1층 로비로 들어갈 수 있고, 북 입문으로 나가면 부속생과 고졸생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지하에 입문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입구는 장애인식 식당과 화장실, 이콜다우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입구로는 은행, 우체국, 말뚝생, 술가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술가생은 통로가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경우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실 등 많은 학생 이용 공간과 보건실, 학생처 등 학내 관리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10. 루스채플

대강당과 루스채플 사이에 위치한 경사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으로 가면 교목실이 나옵니다. 앞문으로 가려면 학생회관 뒤 언덕길을 올라가서 다시 앞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곳에는 채플을 담당하는 교목실이 있는데, 장애학우들이 학기 채플 자리배정 전에 문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11. 대강당

건물 오른쪽 뒤편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채플을 듣는 대강당 안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강당 내부가 계단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불편하며, 경사로 입구가 장벽을 깨기 힘들기 때문에 루스채플 교목실이나 대강당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대강당 큰 계단 양쪽에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12. 외솔문화과학대학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으며 경사로 바로 옆에 장애학우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 경사로가

매우 가파른 비장애인이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고난의 상징인 '굴고다 언덕'으로 불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층과 2층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단 하루씩 있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90여, 902 강의실에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려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식 강의실이여 들어가기엔 계단을 통해서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을 휠체어를 타고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가장 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외솔관 4층과 종합관 3층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학생화실 및 방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13. 종합관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3층의 경우, 위당관 4층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지만, 매우 좁고 계단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위로로 내려 있으며, 종합관과 위당관 사이에 가파른 경사 차로가 있으며, 종합관 3층 뒤편 주차장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14. 위당관

건물 왼쪽의 경사로를 통해 1층으로 갈 수 있으며, 지하입구에도 경사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하지만,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와 1층에 장애학우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5. 연희관(사회과학대학)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청문 왼쪽에 있습니다. 4층을 제외한 모든 계단과 복도와 화장실에 경사철책이 있으며, 경사철책 문 왼쪽 벽과 손잡이 옆에 철자

안내문이 있습니다. 경사철책 문 옆 벽면 150cm 높이에 역사자를 위한 경사철책 번호 확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만 장애학우 전용 화장실이 있으나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경우 지하층만 사용가능합니다.

16. 신광대 본관(법관)

건물 자체가 연애 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입구 주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 지하층, 그 외의 층수층을 운행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장애학우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면 쉽게 지하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학우 전용 화장실은 지하층과 1층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17. 노천극장

휠체어를 이용하여 들어갈 수는 있으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무대 앞쪽이나 관객석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장 뒤편 장애학우 전용 화장실은 양에 10cm 턱이 있는, 도저히 상석안에서 이용 불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8. 음악대학

입구에 경사로가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노천극장 앞을 경유하여 건물 뒤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새바리스, 건로대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강당 오른쪽 계단에는 108계단이 존재합니다.

19. 건로대학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층과 3층에만 장애학우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Illustrated by www.kyoyonin.org/kor/

여성학 추천도서

'이런 책들과 함께 여성학 공부들'

『여걸려와 활동, 게르도 브란덴베르그/황금가지

낯익은 것의 낯설게 하기 - 성별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과 권력이 없는 남성들 상상하고 쓴 이 소설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완전히 바뀐 '여걸려와'라는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은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에게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며? 과연?



『남자가 활동할 한다면, '일상의 변란,'

글로리아 스타이넴/한실문화연구

글로리아 스타이넴은 8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여성주의 잡지 미스마스를 창간하는 등 사회 활동으로 끊임없이 미디어에 주목을 받는 여성 활동가였다. 이 책의 예시들은 일상에서 노는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재치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담고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포, J. M. 쿤스/책세상

2003 노벨문학상 수상자 쿤스가 '로빈슨 크루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책. 철저하게 남성중심적 시각이었던 '로빈슨크루소'라는 말에 주인공 수전 버번의 시점에서 등장인물과 작가 '자나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페스트, 콘라트 로렌츠/박영출판사

사회학 박사기 쓴 이책이 최근 세계를 통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유익하고 재밌는 페스트 가이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내 밤에 아이들을 키워라, 베타 도슨/한실문화연구
평론하는 여성학자 베타 도슨의 '자위 행위'에 대한 고전적 저서. 그녀는 우연히 자위 행위를 여성의 성적 권리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섰다.



『심비아 플라스의 일기, 심비아 플라스/문예출판사

12년간 심비아 플라스가 써내려간 일기 같은 이후 가사와 남편의 그녀에 얽매어 시간에 못가며 정작의 의미를 끊임없이 다져대던 시인의 고뇌와 열광까지 그녀와 육성이 생생하게 녹여있다.



『행복한 페미니즘, 밥 흑스/박문출판사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페미니즘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 저자는 '페미니즘은 정치불주의와 성차별적 지배와 억압을 중지 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 정의한다.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교양인

우리가 직면한 정세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는 것을 저자는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나가고 있다. 여성 정태인, 유영민, 성만애, 김현희의 목소리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게를 디트리히스/도하나문화

사회심리학자인 게를 디트리히스는 항상 대립적인 듯 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통가 '거울'이 항상 남성/여성들을 묶어준다. 그리고 그 차이를 생산하고 그로부터 분열된 의미를 생산하는 권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르지만 분명동등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거울'도 같이 존재하기를 꿈꾼다.



『페니스파시즘, 권경한/새로 읽다/교양인

페니스 = 파시즘? -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성취론, 성폭력의 양면을 폭로 이 책. 파시즘은 성취를 속의 남성우월적 파시즘을 해체하고 있다.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학자연합/한울

무엇이 결과로 확보되었다고 믿어졌던 '여성인권'이 아직 '권력'과 '말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 책은 고발. 성폭력에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인권 계층의 사회적 요구성을 해체하고, 이와 더불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해 보이고 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도하나문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의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아내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아내폭력을 생산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너희는 불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만든다,

심재희/페미니즘여성학연구소/한울

성폭력에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 - 성폭력 여성들이 직접 쓴 자신들의 민생문.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가 개인의 인연에 미치는 영향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매매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해구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계수열리의 해송화, 계수리 배리/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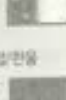
천지규적 차원에서 그려나 개인들의 삶과 구세상을 일지 않는 시인의 군현 속에서 성매매를 분석한다. 계수리 배리는 국제적 차원의 자본주의 군사주의, 성매매



를 통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행위주체들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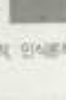
『동행속의 페스트, 케서린 문/삼인

가치론 여성들의 삶과 변화를 한민간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와의 관련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포착해내고 있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책이다.



『노동의 페미니즘, 조순경/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 논문집이다.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조망하고 있다.



『여성과 일, 김아수/동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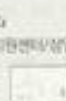
여성노동에 대한 계층서적 여성노동의 역사 노동시장 이론화 각 각주별 여성들의 삶과 직장에 성취론, 가계노동과 노동법 등의 주제를 계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버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수전 D. 월리스/도하나문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남성의 거울에 맞게 이미지화한다. 이 책은 페미니즘 문화이론 계층서적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하며 초기 여성이데지 연구에서부터 정신분석학의 분석, 거울의 일기, 관례중심 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평가하고 있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김민보/도하나문화

몸의 재현, 몸 바꾸기, 매매, 출산과 낙태 등의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한국사회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미혼녀의 이중적 의미, 프리카 하우스(단)사람

여성들에 대한 인위부를 통해서 여성
의상이 사회화되고 여성이 상징적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의 세속화(타자)에 대한 통제가 치밀
되는 페미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다이아트의 성정치, 한서남/책사랑

다이아트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외모 관
리’에 대한 분석. 그동안 개인적인 영역
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의 몸,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과 분열을 사회적 정치적 영
역으로 끌고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즉,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던 ‘다이아트’
가 사회적으로 강제된 규율이자 이데올로기라는 것
을 이 책은 밝힌다.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카타 콘노이 외/한울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고 구성되고 인식되는 방식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비판하고 있
는 책이다. 특히 20세기 들어 여성들 사이에 단연한
다이아트의·신경성·가식성을 10세기의 히스테리아에
비유한 50년이후, 여성성에 대한 분석을 무로토의 권력
/자성에 연결시킨 10장은 주목할 만하다.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오조영민/창작과 비평사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에 대한 장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해온 과학에서
의 개관성과 가치중립성이라는 거인을
벗겨낸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과학 기
술·의료의 과거와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서의 여성 배제의 역사를 보여준다.



‘페미니즘과 기술, 주다 최소현/영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여
성이 기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기술에 있
어서의 성별화된 특징을 밝히면서 남성의 기술에 의
한 여성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위험한 여성, 최정우 외/성인

한국의 민족주의와 젠더 - 피카르와 페니
나에서 활동 중인 저자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여성 3명의 논문, 보고서, 포토
에세이, 평론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
해 ‘한국의 민족주의와 젠더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내셔널리즘과 젠더, 우애노 지스크/백종철출판사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회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
는지를 밝혀낸 책이다. 특히 일본군 성
노예 문제를 다루면서 자치는 이 문제가
민족 모순이나 성 모순이라는 식의 논쟁 구도 지배를
비판한다. 오히려 전쟁 시 집단 성폭과 같은 비극이
인류사에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대안일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영 페미니스트 기획단 일과 일출/웅진

90년대 후반 대학에서 활동한 영페미니
스트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호명
하여 페미니즘을 삶의 정치학으로 받아
들이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풀어 쓴 책이다.



여성관련 즐/겨/찾/기

여성 기관 / 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 한국여성인포 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재단 www.kwfoundation.org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lesbian.or.kr
- 여성 청소년 네트워크 무지개송 cgle.daum.net/sprout2005
- 성매매방지 www.wide.or.kr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home.freechal.com/kwdw
-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safe.jinbo.net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wifnho.jinbo.net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www.no-hoju.or.kr
- 진보당 참정권 공동체 여성상담 go.jinbo.net/community/index.php?board=won
- 한국여성개발원 www.kwdv.or.kr
- 여성부 www.mogel.go.kr

여성주의 언론

- 새로운 여성주의 웹진 (일과) www.idara.com
- 웹진 (연나루) www.uninnet.co.kr
- 커리커리 웹진 (또다른 세상) kirklin.org/tosee
-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역순) www.su.asoon.net
-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간) home.pusan.ac.kr/~wollzang
-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주아연소) www.jouscience.pe.kr

여성주의 문화

- 여성문화예술기획 www.femart.or.kr
- 달나라 앞세모 dalara.jinbo.net
- 또 하나의 문화 www.tomoon.org
- 여성문화운동 실행부 www.sabubu.or.kr
- 서울여성영화제 www.wfss.or.kr

-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레즈비언 L방송 cgle.daum.net/lezpa
- 여성영상공간 blog.naver.com/womact
- 페미니스트 가수 '지연' 홈페이지 www.zibion.com

성폭력 관련 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한국 여성과 전화 연합 www.holine.or.kr
-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www.uninnet.net/love
-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 센터 www.cyberhumanright.or.kr
-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www.noviolence.or.kr

여성 노동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www.kwnet.org
- 한국여성노동조합 www.kwunion.or.kr
- 여성지원단 www.hrb.or.kr
- 사비즈 www.sabiz.co.kr
- 한국 여성 벤처협회 www.kovwa.or.kr
- 서울 여성 노동 조합 www.womencourt.or.kr
- 여성 노동 가정 협회 www.womencourt.or.kr/womencourt

여성의 몸

- 피지매연대 bloodsisters.or.kr
- 작은차이 www.littlechal.com
- 월경페스트 www.menafest.org
- 피임연구회 www.plm.or.kr

학술 자료

- 이화여성학 ews.ewha.ac.kr
- 아시아여성연구소 sookmyung.ac.kr/~asianfem
- 여성이론연구소 www.gcfeminist.org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의 색다른 가능성!

내 관심대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여성주의 우동 team에서 만나요!

- 만일도 관심과 참가 신청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_^



대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 team

여학생들이 면치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많은 여학생이 면치되고 있습니다. 학내 지지 공간 대부분이 여학생에게만 보장하지 못하는 현유제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여학생은 최소한의 면치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공여학생회에서는 복지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시 보는 이후 환경 개선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여휴에서 펼쳐는 신나는 이벤트, 즐거운 공간 활용
을 여휴 개선 운동 team에서 함께해요!

레즈비언 운동 team

여성의 (모직 두 개)가 존재한다는 성별이분법적인 구분, 이성애만이 정상성을 이어가라는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어떤 존재로 이어지고, 무엇을 이어가려 할까요?

기부경제 사회의 관습들은 일상에서 사물5대, 동성애자의 존재가 대외로 비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레즈비언의 경우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에 기초한 기부경제 사회의 편견이 더해져 성소수자도 힘든 존재를 만드는데요.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는 '주제'와 밀접한 있는 레즈비언 기부경제 사회가 성향에 입각한 인식의 조화 조

큰 남성의 욕망을 충실의 재현에는 존재로서의 '비
설'이라는 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데 참여학회는 레즈비언의 주제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술술이 마수라 묶어내는 레즈비언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와 성소수
 자 단체와의 연대 및 지원으로 해내 레즈비언 문
 화를 세우고자 합니다.

레즈비언 운동에 함께 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레즈비언 운동 team에서 만나요!

장대여성 운동 team

성문에 서부터 학군, 강의실, 화장실, 곳곳의 공간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건물들, 야간 구분 이 된 원 장애인 화장실, 과연 연세대학교는 누구의 교육을 위해 누구에게 열려있는 학교인가요?

이제 장애인 이문권과 교육권을 위한 운동을 보다 좀더 여성화해서 시작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여성 운동은 단순히 장애 + 여성의 이중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였을까? 현실적인 몸의 장남 가운데서 여성임을 감호하는 거부정서 사회에서 장애 여성은 이중의 억압을 받는 존재로서 아닌, 장애 여성으로 존재합니다. 장애 출현현상에서부터는 학제, 성, 장애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건강의 변화, 성, 영 등 장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풀어나갈 운동을 준비합니다. 장애 여성 운동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찾아 보십시오.

team 참여를 전파하는 분을 총어학생회로 연락주세요
학관 3층 왼쪽 면 글 분홍색 문, 2723-3645
inside-out@yonsei.ac.kr

학내 전 / 화 / 번 / 호

학교기관 전화번호

[illegible]

과학영역	2023-2135
자연과학소	2023-2346
건강증진영역	2023-2362
학업성취소	2023-2374
출판도시권	2023-2398
연세대학교원	2023-2485
연세대학교원	2023-2398

전통문화사업	2023-4024
문화재	2023-4025
문화재	2023-4026
문화재	2023-4027
문화재	2023-4028
문화재	2023-4029
문화재	2023-4030
문화재	2023-4031
문화재	2023-4032
문화재	2023-4033
문화재	2023-4034
문화재	2023-4035
문화재	2023-4036
문화재	2023-4037
문화재	2023-4038
문화재	2023-4039
문화재	2023-4040
문화재	2023-4041
문화재	2023-4042
문화재	2023-4043
문화재	2023-4044
문화재	2023-4045
문화재	2023-4046
문화재	2023-4047
문화재	2023-4048
문화재	2023-4049
문화재	2023-4050
문화재	2023-4051
문화재	2023-4052
문화재	2023-4053
문화재	2023-4054
문화재	2023-4055
문화재	2023-4056
문화재	2023-4057
문화재	2023-4058
문화재	2023-4059
문화재	2023-4060
문화재	2023-4061
문화재	2023-4062
문화재	2023-4063
문화재	2023-4064
문화재	2023-4065
문화재	2023-4066
문화재	2023-4067
문화재	2023-4068
문화재	2023-4069
문화재	2023-4070
문화재	2023-4071
문화재	2023-4072
문화재	2023-4073
문화재	2023-4074
문화재	2023-4075
문화재	2023-4076
문화재	2023-4077
문화재	2023-4078
문화재	2023-4079
문화재	2023-4080
문화재	2023-4081
문화재	2023-4082
문화재	2023-4083
문화재	2023-4084
문화재	2023-4085
문화재	2023-4086
문화재	2023-4087
문화재	2023-4088
문화재	2023-4089
문화재	2023-4090
문화재	2023-4091
문화재	2023-4092
문화재	2023-4093
문화재	2023-4094
문화재	2023-4095
문화재	2023-4096
문화재	2023-4097
문화재	2023-4098
문화재	2023-4099
문화재	2023-4100
문화재	2023-4101
문화재	2023-4102
문화재	2023-4103
문화재	2023-4104
문화재	2023-4105
문화재	2023-4106
문화재	2023-4107
문화재	2023-4108
문화재	2023-4109
문화재	2023-4110
문화재	2023-4111
문화재	2023-4112
문화재	2023-4113
문화재	2023-4114
문화재	2023-4115
문화재	2023-4116
문화재	2023-4117
문화재	2023-4118
문화재	2023-4119
문화재	2023-4120
문화재	2023-4121
문화재	2023-4122
문화재	2023-4123
문화재	2023-4124
문화재	2023-4125
문화재	2023-4126
문화재	2023-4127
문화재	2023-4128
문화재	2023-4129
문화재	2023-4130
문화재	2023-4131
문화재	2023-4132
문화재	2023-4133
문화재	2023-4134
문화재	2023-4135
문화재	2023-4136
문화재	2023-4137
문화재	2023-4138
문화재	2023-4139
문화재	2023-4140
문화재	2023-4141
문화재	2023-4142
문화재	2023-4143
문화재	2023-4144
문화재	2023-4145
문화재	2023-4146
문화재	2023-4147
문화재	2023-4148
문화재	2023-4149
문화재	2023-4150
문화재	2023-4151
문화재	2023-4152
문화재	2023-4153
문화재	2023-4154
문화재	2023-4155
문화재	2023-4156
문화재	2023-4157
문화재	2023-4158
문화재	2023-4159
문화재	2023-4160
문화재	2023-4161
문화재	2023-4162
문화재	2023-4163
문화재	2023-4164
문화재	2023-4165
문화재	2023-4166
문화재	2023-4167
문화재	2023-4168
문화재	2023-4169
문화재	2023-4170
문화재	2023-4171
문화재	2023-4172
문화재	2023-4173
문화재	2023-4174
문화재	2023-4175
문화재	2023-4176
문화재	2023-4177
문화재	2023-4178
문화재	2023-4179
문화재	2023-4180
문화재	2023-4181
문화재	2023-4182
문화재	2023-4183
문화재	2023-4184
문화재	2023-4185
문화재	2023-4186
문화재	2023-4187
문화재	2023-4188
문화재	2023-4189
문화재	2023-4190
문화재	2023-4191
문화재	2023-4192
문화재	2023-4193
문화재	2023-4194
문화재	2023-4195
문화재	2023-4196
문화재	2023-4197
문화재	2023-4198
문화재	2023-4199
문화재	2023-4200
문화재	2023-4201
문화재	2023-4202
문화재	2023-4203
문화재	2023-4204
문화재	2023-4205
문화재	2023-4206
문화재	2023-4207
문화재	2023-4208
문화재	2023-4209
문화재	2023-4210
문화재	2023-4211
문화재	2023-4212
문화재	2023-4213
문화재	2023-4214
문화재	2023-4215
문화재	2023-4216
문화재	2023-4217
문화재	2023-4218
문화재	2023-4219
문화재	2023-4220
문화재	2023-4221
문화재	2023-4222
문화재	2023-4223
문화재	2023-4224
문화재	2023-4225
문화재	2023-4226
문화재	2023-4227
문화재	2023-4228
문화재	2023-4229
문화재	2023-4230
문화재	2023-4231
문화재	2023-4232
문화재	2023-4233
문화재	2023-4234
문화재	2023-4235
문화재	2023-4236
문화재	2023-4237
문화재	2023-4238
문화재	2023-4239
문화재	2023-4240
문화재	2023-4241
문화재	2023-4242
문화재	2023-4243
문화재	2023-4244
문화재	2023-4245
문화재	2023-4246
문화재	2023-4247
문화재	2023-4248
문화재	2023-4249
문화재	2023-4250
문화재	2023-4251
문화재	2023-4252
문화재	2023-4253
문화재	2023-4254
문화재	2023-4255
문화재	2023-4256
문화재	2023-4257
문화재	2023-4258
문화재	2023-4259
문화재	2023-4260
문화재	2023-4261
문화재	2023-4262
문화재	2023-4263
문화재	2023-4264
문화재	2023-4265
문화재	2023-4266
문화재	2023-4267
문화재	2023-4268
문화재	2023-4269
문화재	2023-4270
문화재	2023-4271
문화재	2023-4272
문화재	2023-4273
문화재	2023-4274
문화재	2023-4275
문화재	2023-4276
문화재	2023-4277
문화재	2023-4278
문화재	2023-4279
문화재	2023-4280
문화재	2023-4281
문화재	2023-4282
문화재	2023-4283
문화재	2023-4284
문화재	2023-4285
문화재	2023-4286
문화재	2023-4287
문화재	2023-4288
문화재	2023-4289
문화재	2023-4290
문화재	2023-4291
문화재	2023-4292
문화재	2023-4293
문화재	2023-4294
문화재	2023-4295
문화재	2023-4296
문화재	2023-4297
문화재	2023-4298
문화재	2023-4299
문화재	2023-4300
문화재	2023-4301
문화재	2023-4302
문화재	2023-4303
문화재	2023-4304
문화재	2023-4305
문화재	2023-4306
문화재	2023-4307
문화재	2023-4308
문화재	2023-4309
문화재	2023-4310
문화재	2023-4311
문화재	2023-4312
문화재	2023-4313
문화재	2023-4314
문화재	2023-4315
문화재	2023-4316
문화재	2023-4317
문화재	2023-4318
문화재	2023-4319
문화재	2023-4320
문화재	2023-4321
문화재	2023-4322
문화재	2023-4323
문화재	2023-4324
문화재	2023-4325
문화재	2023-4326
문화재	2023-4327
문화재	2023-4328
문화재	2023-4329
문화재	2023-4330
문화재	2023-4331
문화재	2023-4332
문화재	2023-4333
문화재	2023-4334
문화재	2023-4335
문화재	2023-4336
문화재	2023-4337
문화재	2023-4338
문화재	2023-4339
문화재	2023-4340
문화재	2023-4341
문화재	2023-4342
문화재	2023-4343
문화재	2023-4344
문화재	2023-4345
문화재	2023-4346
문화재	2023-4347
문화재	2023-4348
문화재	2023-4349
문화재	2023-4350
문화재	2023-4351
문화재	2023-4352
문화재	2023-4353
문화재	2023-4354
문화재	2023-4355
문화재	2023-4356
문화재	2023-4357
문화재	2023-4358
문화재	2023-4359
문화재	2023-4360
문화재	2023-4361
문화재	2023-4362
문화재	2023-4363
문화재	2023-4364
문화재	2023-4365
문화재	2023-4366
문화재	2023-4367
문화재	2023-4368
문화재	2023-4369
문화재	2023-4370
문화재	2023-4371
문화재	2023-4372
문화재	2023-4373
문화재	2023-4374
문화재	2023-4375
문화재	2023-4376
문화재	2023-4377
문화재	2023-4378
문화재	2023-4379
문화재	2023-4380
문화재	2023-4381
문화재	2023-4382
문화재	2023-4383
문화재	2023-4384
문화재	2023-4385
문화재	2023-4386
문화재	2023-4387
문화재	2023-4388
문화재	2023-4389
문화재	2023-4390
문화재	2023-4391
문화재	2023-4392
문화재	2023-4393
문화재	2023-4394
문화재	2023-4395
문화재	2023-4396
문화재	2023-4397
문화재	2023-4398
문화재	2023-4399
문화재	2023-4400
문화재	2023-4401
문화재	2023-4402
문화재	2023-4403
문화재	2023-4404
문화재	2023-4405
문화재	2023-4406
문화재	2023-4407
문화재	2023-4408
문화재	2023-4409
문화재	2023-4410
문화재	2023-4411
문화재	2023-4412
문화재	2023-4413
문화재	2023-4414
문화재	2023-4415
문화재	2023-4416
문화재	2023-4417
문화재	2023-4418
문화재	2023-4419
문화재	2023-4420
문화재	2023-4421
문화재	2023-4422
문화재	2023-4423
문화재	2023-4424
문화재	2023-4425
문화재	2023-4426
문화재	2023-4427
문화재	2023-4428
문화재	2023-4429
문화재	2023-4430
문화재	2023-4431
문화재	2023-4432
문화재	2023-4433
문화재	2023-4434
문화재	2023-4435
문화재	2023-4436
문화재	2023-4437
문화재	2023-4438
문화재	2023-4439
문화재	2023-4440
문화재	2023-4441
문화재	2023-4442
문화재	2023-4443
문화재	2023-4444
문화재	2023-4445
문화재	2023-4446
문화재	2023-4447
문화재	2023-4448
문화재	2023-4449
문화재	2023-4450
문화재	2023-4451
문화재	2023-4452
문화재	2023-4453
문화재	2023-4454
문화재	2023-4455
문화재	2023-4456
문화재	2023-4457
문화재	2023-4458
문화재	2023-4459
문화재	2023-4460
문화재	2023-4461
문화재	2023-4462
문화재	2023-4463
문화재	2023-4464
문화재	2023-4465
문화재	2023-4466
문화재	2023-4467
문화재	2023-4468
문화재	2023-4469
문화재	2023-4470
문화재	2023-4471
문화재	2023-4472
문화재	2023-4473
문화재	2023-4474
문화재	2023-4475
문화재	2023-4476
문화재	2023-4477
문화재	2023-4478
문화재	2023-4479
문화재	2023-4480
문화재	2023-4481
문화재	2023-4482
문화재	2023-4483
문화재	2023-4484
문화재	2023-4485
문화재	2023-4486
문화재	2023-4487
문화재	2023-4488
문화재	2023-4489
문화재	2023-4490
문화재	2023-4491
문화재	2023-4492
문화재	2023-4493
문화재	2023-4494
문화재	2023-4495
문화재	2023-4496
문화재	2023-4497
문화재	2023-4498
문화재	2023-4499
문화재	2023-4500
문화재	2023-4501
문화재	2023-4502
문화재	2023-4503
문화재	2023-4504
문화재	2023-4505
문화재	2023-4506
문화재	2023-4507
문화재	2023-4508
문화재	2023-4509
문화재	2023-4510
문화재	2023-4511
문화재	2023-4512
문화재	2023-4513
문화재	2023-4514
문화재	2023-4515
문화재	2023-4516
문화재	2023-4517
문화재	2023-4518
문화	

인사과	252-4675
헌법재판소	252-4963
선정심사위원회	252-4000
행정안전부	252-4009
국무총리실	252-3621
국무조정실	252-3612
법무부	252-3611
국립중앙도서관	252-5007
국립현대미술관	252-3619

학생회 전화번호

총학생회	2525-3641
	3643, 3644
총학생부회	2523-3645
교내학생회	2523-3647

[illegible]

단과대 및 과사무실

신용평가	2020-0202	신용평가학회	2020-0101
회계사	2020-0205	사회적기업	2020-0105
중소기업	2020-0209	법과대학	2020-0109
영어영문	2020-0300	법학과	2020-0306
국어국문	2020-0300	공정대학	2020-0309
국어학	2020-0304	교육대학	2020-0325
노년노년	2020-0300	생리학과	2020-0303
사회학	2020-0307	기초과학	2020-0303
법학	2020-0309	기초과학	2020-0303
법학(법학)	2020-0406	기초과학	2020-0303
사회학	2020-0401	법학대학원	2020-0303
사회학	2020-0401	법학대학원	2020-0303

[illegible][illegible]